

1997학년도
碩士學位 請求論文

주일성수의 當爲性에 대한 考察

- 칼빈을 중심으로 -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박 영 금

주일성수의 當爲性에 대한 考察

- 칼빈을 중심으로 -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년 12월 7일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박 영 금

謝 辭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7년 12월 7일

박 영 금

박영금의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主審 이영진

副審 김성봉 이영진

副審 김성봉

副審 이은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 년 월

目 次

I. 序 論	3
1. 문제 제기	3
2. 목적과 方法	4
3. 선행 研究와 論文의 진행	5
II. 安息日에 대한 잘못된 견해	8
1. 제7일 安息敎의 견해(The Seventh - Day View)	8
2. 律法 폐기론자들의 견해(The Antinomian View)	9
III. 칼빈의 律法에 대한 견해	10
1. 칼빈의 律法이해	10
2. 칼빈의 律法の 제3사용법	15
IV. 칼빈과 淸敎徒의 主日觀 비교	17
1. 淸敎徒의 主日觀	18
2. 칼빈과 淸敎徒의 主日觀 비교	22
V. 칼빈의 主日觀	24
1. 기독교 강요 초판(1536)	24

2. 제네바 지침과 신앙고백(1537).....	28
3. 기독교 강요(1539)	30
4. 제네바 요리문답(1545)	32
5. 칼빈의 註釋들	34
1) 舊 約	34
가. 창세기에서(2:3)	34
나. 출애굽기에서(31:13,23:10)	37
다. 레위기에서(19:30,26:2)	37
라. 이사야에서(56:2,58:13-14)	38
마. 예레미야에서(17:21-27)	39
바. 에스겔에서(20:12-20)	41
2) 新 約	43
가. 마태복음에서(12:1-8)	43
나. 마가복음에서(2:24)	44
다. 누가복음에서(눅5:5-16)	45
라. 사도행전에서(20:7)	46
마. 로마서에서(14:5-6)	47
바. 고린도전서에서(16:2)	47
사. 갈라디아서에서(4:10)	48
아. 히브리서에서(4:3-10)	49
VI. 結論.....	51
■ 참고문헌	53

1. 序 論

1. 문제 제기

현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主日성수의 바른 관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칼빈의 사상과 淸教徒들의 주일성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율법의 제4계명의 계승을 유지하면서 그 준수에 엄격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난무하고 世俗주의의 급류에 직면해 있는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성도들을 대량 생산하는 일에 주력하다 보니 기독교인의 구분된 외형적인 생활 양상으로 자리잡은 주일성수 문제가 신자들의 편리 위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들의 경건을 훈련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서 지켜지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한 오락이나 휴식, 레저를 위한 날로 퇴색되고 세속의 문화에 합류하여 이제는 경건한 기독교인들까지도 형식적인 예배를 위하여 오전에 한 두 시간을 할애하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 행했다고 자위하는 경향으로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요인으로는 군인들의 휴일 문제 국가고시를 위시한 각종 시험들이 주일에 치러지고 중, 고등학교의 보충 수업이며 심지어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Mission 계통의 학교에서까지 입시를 주일에 실시하는 행위들은 어떤 명목으로도 변질되어질 수 없는 주일 성수에 대한 도전이며 신앙 행위에 대한 탄압이다. 칼빈은 그의 설교¹⁾에서 “만일 우리가 주일을 바꾸어 우리 생계 유지의 날이나, 혹은 우리의 오락과 즐거움을 위한 날로 사용하면 정녕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1. 신명기 5 :12-14.

까? 그것은 도리어 그를 조롱하는 일이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²⁾

이러한 주일의 성수가 불경건하게 된 요인은 주일성수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신학적인 이해의 빈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주일성수의 당위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칼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또한 개혁주의 전통의 배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을 고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目的과 方向

이 글의 첫째 목적은 바로 주일성수의 정신은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필연적 의무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찬양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인간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진리를 파괴하는 오류를 낳게 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구약에 근거해서 굳이 토요일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부류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일요일을 구별하여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부류와 반대로 지나치게 자행 자지 하는 부류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리게 되며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바른 입장이 뒷받침이 될 때 주일에 대한 보다 정당하고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장에 견고히 설 때 좌우로 치우치거나 시대의 사조에 요동함이 없이 정당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 Benjamin Farly,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역, (서울:성광문화사, 1991), p. 191.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일성수의 당위성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해답이 주어져야 한다. 본인은 이를 위하여 먼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이루어 준 종교개혁자 칼빈의 율법 이해³⁾를 기초로 하여 주일에 대한 그의 글들을 통하여 당위성의 근거를 연구하고 주일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갖지 못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무지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가장 바르게 표명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주일성수의 당위성에 관한 원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칼빈은 율법(주로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도덕법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그의 율법 이해는 청교들에게서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엄밀한 정신으로 주일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다.

3. 선행 研究와 論文의 진행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 안식일과 주일에 관하여 소개되고 발표되어진 논문들과 서책들을 살펴본 결과는 이러한 글들이 주일성수에 대한 많은 이해와 그 기원과 또는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 및 성경적 증거와 교회사적 고찰을 통한 주일의 이해를 많이 돕고 있다. 특별히 몇 개의 논문들을 소개한다면, 1986년

3. 칼빈은 율법에 대하여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부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1536년판에서 율법은 제1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으나 최종판인 1559년 판에서는 제2권의 7장과 8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있다.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말의 뜻은 (1) 모세의 종교 전체와(II. vii. 1), (2) 선민에게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주로 십계명) 및 예수께서 요약 하신것(II. viii), 또는 (3) 각종 민사법과 재판법과 의식(儀式)법이다. 이 가운데서도 “도덕법”은 의의 진정하고 영원한 원칙”이며(IV. xx. 15), 가장 중요하다. 7장 6-15절에 율법의 세 가지 효용이 취급되고 있다. 칼빈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셋째 효용”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지만, 루터는 정죄적 기능을 가장 중요시한다. 칼빈은 7장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총신대학 신학 대학원(總神大學 神學 大學院) 신학 석사 과정의 김달원씨는 “主一 聖守에 관한 神學的考察”이라는 논문⁴⁾에서 성경과 교회사에서 드러난 주일성수에 관한 배경들을 논리 있게 정리해 주고 있다. 그는 주일의 기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으며 이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 계시를 통한 증거와 교부들과의 증언 및 교회의 전통성에 그 당위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한 감이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그리고 율법(律法)의 제 4계명에 대한 이해와 율법의 용도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고신대학의 조종만씨는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그의 석사 학위 논문⁵⁾에서는 신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또한 안식일이 주일로 된 경위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를 들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화되고 확장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관점은 참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주일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았다. 또한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 안식일이 십계명에 반영되어진 반영구적인 법으로 보고 이 4계명이 특정한 날로서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도덕법이며 그것이 모든 기독교 세계에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과 예배 문답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의 정광석(신학전공)은 그의 논문⁶⁾ “주일 聖守에 대

4. 김달원, “主一 聖守에 관한 神學的考察”(碩士學位 청구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6)

5. 조종만, “안식일과 주일 ” (신학석사學位論文,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87)

6. 鄭光錫, “主日聖守에 對한 聖經的考察”(아세아 연합신학대학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85)

한 聖經的 考察”에서 안식일의 기원과 제설, 안식일의 의의, 주일과의 관계성, 올바른 성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어 많은 유익이 된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주일 성수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라기 보다는 주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특별히 1994년 「목회신학」 9월호에 특집으로 “흔들리는 주일 성수 무엇이 다른가”⁷⁾에서 서창원 목사는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성수 개념”을 실었는데 그는 칼빈의 주일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을 다루어서 칼빈의 입장 전체를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또한 칼빈 율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의 설명이 아주 간략하게 진술되어 이 율법(특히 제 삼사용법)과 관련된 주일관의 이해는 없었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들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관한 많은 이해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특히 본 논문은 이들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칼빈의 올바른 율법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일 성수의 당위성에 대하여 칼빈의 작품들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주일성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으로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나 인간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규례이며 법도임을 분명하게 논증하여 이 주일성수가 어떤 인간들의 호소나 약속이 아닌 만왕의 왕되신 주께서 친히 명하신 명령, 즉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도덕법으로 확실히 그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위해 우리의 위치를 개혁주의의 신학의 기초인 칼빈의 작품들을 기초하여 이를 조명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 이 논문의 진행은 제1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의 제한점과 그리고 본 논문의 진행 과정을, 제 2장에서는 잘못된 율법 이해로 인하여 나타난 제 7일 안식교(The seventh-Day)의 입장과 율법 폐기론자(The Antinomian)들의 주장을 약

7. 서창원,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성수 개념”, 「목회와 신학」 9월호, 1994.

술하고 이어 제 3장에서는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이해의 고찰을 통하여 십계명 중 제 4계명이 신자들이 영원히 준수해야 할 도덕법임을 그의 율법의 제삼의 용도를 이해함으로 확고히 하고 제 4장에서는 개혁주의 노선에서 주일 성수에 대하여 침예한 길을 걸었던 청교도들의 주일관 이해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 제 5장에서는 칼빈의 주일관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기독교 강요와 그가 작성했던 신앙고백서 및 요리문답서, 그리고 주석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어떠한 주일관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하여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II.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

1. 제 7일 안식교의 견해(The Seventh-Day View)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특정일을 지키는데 무관심했던 반면 제 7일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영구적인 의무로 생각했다. 그들은 제 4계명을 손가락으로 지적하여 주일 첫날을 지키는 자들을 배도자들 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은 “사단이 교회의 불경건한 지도자를 통하여 십계명 중의 넷째 계명에 손을 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옛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폐하고⁸⁾ 그 대신에 이교에서 지켜 오던 ‘태양 숭배일’을 축일로 지키게 했다.” 라고 말하고 그 날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배도자로 정죄했다.⁹⁾ 안식일에 대하

8. 칼빈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영구적인’(perpetual),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 부르고 있다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오만의 근거로 삼고 늘어지면서 방자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안식일을 철폐했다 해서, 언약 파기자로 몰아 붙이고 있다고 했다. 안식교의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여 그들은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 나타내어 이로써 다른 거짓 신들과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 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는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인류의 마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존경하여 예배할 분인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¹⁰⁾ 그들은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에만 집착하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모르고 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한 것처럼 예배일에 관한 신학을 만들고 있다.

2. 율법 폐기론자들의 견해(The Antinomians View) ¹¹⁾

이 견해는 종교 개혁자들 중의 한 부류인 재세례파(Anabaptists)를 포함하여 율법 폐기론자들(Antinomians), Families, 웨이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무리들 가운데 널리 유행하였다.¹²⁾ 이들은 율법과 복음을 절대적인 반명제로 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십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식으로 제4계명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역시 폐지되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킬 의무도 없었다. 주의 날의 준수는 시간들과 절기들에 대한 모든 구별들이 폐지되었다는 신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가 된다고 보았다. 모든 날은 주님의 날로 지켜져야 한다. 이 견해의 변칙적인 극단은 거의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9. Ellen G. White, 「각 시대의 대 쟁투」, 김동기 역, (서울: 시조사 1974), P. 60.

10. *ibid.*, pp. 61-62.

11. Richard B. Gaffin, *Calvin and Sabbath*, (Pennsylvania: Chestnut Hill, 1962) p.2.

12.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 신학 대학원 봄학기 강의안 p.14.

III. 칼빈의 律法에 대한 견해

1. 칼빈의 律法¹³⁾ 이해

주일성수의 당위성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세 부분으로 파악한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은 각 사람의 불의를 책망하며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두번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범법자들을 위한 형벌을 설정하며 사망과 심판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무엇이 옳으며 바른 것인가에 의한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형벌의 공포에 의해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세번째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다스리시는 신자들에게도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헤드리는 것인가에 대해 더욱 더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손가락에 의해 그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만(렘 31:33; 히 10:6), 즉 그들은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만큼 마음이 움직인 자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율법에 의해 유익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즉 율법은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며 그것은 저주로 신자들의 마음을 구속하는 어떤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권고에 의해 그들이 나태를 떨

13. 이곳에서 말해지고 있는 칼빈의 율법이해는 주로 그의 기독교 강요(1559)에서 발췌된 것이다. 빌헬름 니이젤은 「칼빈의 神學」 제6장에서 칼빈의 율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계약으로서의 율법, 예배로서의 율법, 그리스도와 율법, 율법에서의 자유, 자연법의 문제 등으로 칼빈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칼빈은 성서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했으며 그는 율법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쳐버리게 하며, 그들의 불완전에 대해 항상 개어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율법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그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율법을 계율적으로 해독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규범은 사랑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⁵⁾

칼빈은 도덕법¹⁶⁾ 이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십계명에는 의의 완벽한 귀감이 담겨있으므로 “ 삶이 근거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규칙이다”라고 단정한다.¹⁷⁾ 칼빈은 율법의 제3사용법을 말함으로서 율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확보했고 개혁주의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외적인 뜻이고 인간의 구원은 그것을 성취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율법은 이중적 기능을 가

14. 존.칼빈, 「기독교 강요」, 포드 베틀즈 서론, 양낙홍역, (1536년 초판 완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5), pp.103-104.

15. J.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p. 69. 그리스도인의 최고 규범은 사랑일 뿐 그 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결코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New York: Harp and Row, 1963),

p. 78.에서는 개혁자들이 율법을 계율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이면에는 율법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규범화된 율법으로는 대처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16. 존 머레이는 그의 조직신학 제 1권에서 도덕법의 신성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그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본질의 반영이며 표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온선 교수는 그의 박사 학위논문 “칼빈의 神學的 政治 倫理에 관한 研究”에서 칼빈의 법 이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칼빈 당시의 律法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道德法이라고 했다.

17. 칼빈, 「기독교 강요」 2. 8. 5, 칼빈은 도덕적 율법(십계명)의 해설에서 The sufficiency of the law를 말하고 있다. P. 371.

지고 있는데 시민적 기능과 신학적 영적 의미로서의 기능이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가시켜 인간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기술한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고 회개로 인도 하도록 의도되었고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⁸⁾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몽학선생으로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이요 은혜로 볼 수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난 후에도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구도 때문에 율법은 아직도 그 안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루터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필요 없음을 말하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선행을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루터의 율법 이해는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는 결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 8장 9에서 율법의 전수는 신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 보다 더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보존 되었다(Fuit Mosis caelesti magis providentia, quam hominum studio mirabiliter conservata)”.¹⁹⁾고 했다. 또한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제2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고 했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시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하며 그들의 기대를 강화해서 오래 지체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18. Luther, WA 8, p. 103.

19. 칼빈, 「 기독교 강요」, 김영규역, 미간, 1997, p. 38.

하시려는 것이다²⁰⁾

칼빈은 그의 에스겔서의 주석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인들을 은인과 더욱 굳게 결속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신 후에 그들의 생활에 관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실 것을 율법으로 증명해 주셨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에서 율법이 명령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은총을 포함한 것이었다고 전망했다.²¹⁾

칼빈에게 있어서 도덕적 및 의식적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점에 서 중요하다. 그리고 율법의 형식을 목적에서 분리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그는 또한 율법이 명령한 의식들을 복음에 나타난 완벽하고 명백한 계시의 “예표” 또는 “전조”라고 보았는데 이 예표(豫表, type)설은 개혁파 신학의 거의 불변하는 특징이 되었다.²²⁾

십계명에 관하여는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고 경고한 말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의를 거저 전가해 주시며 중생의 영으로 의를 풀어 주시지 않으면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허사란 뜻이다.²³⁾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안에 끈질기게 붙어 있는 육체의 연약성 까닭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성취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롬8:3)고

20. 칼빈, 「기독교 강요」, 2. 7. 1

21. 존 칼빈, 「舊約 聖經 註釋」,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 위원회,(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P. 341.

22. 참조. 강요, 2.7.19 ; 2.8.28 ; 2.9.3 ; 2.11.2-6 ; 3.20.18 ; Heppe RD, p. 403; WM Confession VII. 5.

23. ibid., 2.7.2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갈 3: 13) 그래서 그는 신앙을 통하여 그의 율법을 완성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였고 그가 성취하신 의와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셨다.²⁴⁾ 그렇지만 약속을 주신 것은 허사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알리며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 많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 하도록 한다. 또한 율법은 행악자들과 불신자들을 억제하는데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며 중생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한다. 율법은 또한 신자들을 훈계해서 선행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²⁵⁾

율법의 폐기 정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우리 속에 진노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표상들을 성취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체의 도래와 더불어 그림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을 경멸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마 5:17)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덕목과 악덕의 모형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율법의 복음에 의하여 설명할 때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²⁶⁾

24. 이형기 편저, 「세계개혁 교회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p. 152.

2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2.7.6-13.

26. 이형기, op. cit., P. 153.

2. 칼빈의 율법의 제3사용법²⁷⁾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제 2권 7장 12-13에서 율법의 제3 사용법을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중심적인 목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²⁸⁾ 그리고 이 용도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신자들은 이 율법의 혜택을 입게 되는데 특히 두가지면, 즉 신자들이 앙모하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고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며 또 하나는 배울 뿐만 아니라 충고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신자는 율법을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로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²⁹⁾ 우리는 예언자가 율법에서 교훈뿐만 아니라 은총을 붙잡는 것을 본다. 다윗은 특히 율법에서 중보자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린다. 중보자가

27.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2권에서 율법의 3가지 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제 3용법이 가장 중요한데 7장의 12-13에서 잠시 언급후(3. 19. 2에 또한 율법의 제 3용법에 대한 암시가 있음) 제외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의 책 제 3권 중 특히 6장과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논하면서 율법의 제 3용법을 다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장에서도 제 3용법을 드러내 놓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장의 서두에 율법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칼빈이 제 2권의 7장에서 논한 율법에 관한 사한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 야콥스(Paul Jacobs)가 지적했듯이 “소위 칼빈의 이 율리라고 하는 성화 교리를 취급하는 방법은 율법의 제 3용법에 관한 교리의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했다. Paul Jacobs, *Præ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reprint),p.103.

28. 칼빈, 「기독교 강요」,2.7.12.

29. 칼빈은 다윗은 율법을 찬양했을 때 이 용도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했다. 즉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9:7-8). 또 다른 구절인 시119:105; 119:5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해준다.

없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³⁰⁾

이어서 칼빈은 율법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오해한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모세의 교훈을 들면서 율법이 죄인들 사이에는 죽음을 만들어 내지만 신자들 사이에는 더 좋고 훌륭한 이용법이라고 신명기 32:46-47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칼빈은 율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순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무서워 도망하거나 그 교훈을 피해서는 안되며 율법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 완전성은 신자가 일평생 도달하려고 하는 신자의 목표가 되어한다고 했다.³¹⁾

칼빈은 율법을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규범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결국 율법을 단순히 유대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중생된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엄연한 규범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찾고있다. 칼빈에 있어서 율법이 갖는 성격중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율법의 제 삼사용(*tertius usus legis*) 으로서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멜랑히톤에서 시작해서 칼빈이 표명한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다.³²⁾

또한 율법이 어디에 기초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루터와 쾰링글리, 그리고 초기 루터와 후기 루터의 차이이다.³³⁾ 쾰링글리는 율법

30. *ibid.*,

31. 칼빈, 「기독교 강요」, 2.7.13(참조, 고전 9:24-26).

32. 김영규, William Twiss의 안식일 강의,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97년 봄학기 강의 안 중에서.

33. 루터는 비텐베르그에서 강의 하는 동안 이러한 사상을 가졌다. 쾰링글리는 루터와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가졌다. 그래서 신교의 원리에 서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기초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신교는 믿음으로 난 의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했다.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 개혁주의 라인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믿음이 기초이다 그리고 믿음과 율법은 동시다. 이것이 칼빈에게와서 율법의 제 삼사용으로 굳어졌다. (김영규,

의 기초를 믿음으로 보았고 칼빈은 율법과 믿음이 통일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입장은 율법의 제3사용법을 확고히 한다. 특별히 이러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학파의 우르시누스, 등에서 공고히 되었다.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 곧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 율법의 제3사용법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서 남으며 이러한 명확하고 제시된 규범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다.³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핵심이다.³⁵⁾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것은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완벽한 귀감이 담겨 있으므로 삶이 근거할 하나의 영원 불변한 규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³⁶⁾ 그는 율법 해석의 적용에 있어서는 반듯이 율법의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함을 말한다.³⁷⁾ 또한 계명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피하고 소극적인 계명 뒤에 숨은 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

IV. 칼빈과 淸教徒의 主一觀 비교

칼빈의 사상과 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주일 성수를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의 본질로 간주한 청교도들은 칼빈의 율법 이해와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으며 또한 주일에 대한 이해가 둘 사이에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봄학기 강의안에서)

3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 13.12

35. Ibid., 3. 7. 10, 1. 17. 2.

36. Ibid., 2. 8. 5, 2. 7.13.

37. Ibid., 2. 8. 7.

1. 청교도의 주일관

칼빈에게 있어서 의식법을 제외한 모세의 법 대부분을 도덕법으로 이해하였고 십계명안에 포괄할수 있었다. 따라서 중생된 이후에도 그 법의 사용(usus legis tertius)을 열어 놓았다. 그와같이 제 4계명 안식일 준수도 도덕법으로 해석하였고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식적인 성격을 제외한 주일의 개념 아래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켜야 할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퓨리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³⁸⁾ 그들은 주일만 지키고 도덕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의식법에 속한 유대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지않았다. 청교도는 영국 기독교 주일(the English Christian Sunday), 즉 주간의 첫째날의 개념을 창조하였다.³⁹⁾ 엘리자베드여왕 시대에 이미 주일날 백성들의 오락을 위해 공적으로 스포츠가 허용된(1583) 이래 제 4계명을 그들의 시대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퓨리탄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안식일 논쟁은 Mr. Bound가 안식일에 관한 논문⁴⁰⁾에서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며 그 법은 도덕적이고 영원한법⁴¹⁾이라 하여 주일을 세속화하는 스포츠나 오락게임들을 버릴 것을 발표하자, 대주교인 Whigift가 출판된 그 책들을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던 일이 있는 후에도 계속 은밀히 읽혀졌다.

38. Cf. William Twiss, *The Christian Sabbth Vindicated*, (London1641; Thomas Shepard 1605-1649), *These Sabbaticae*.

39. J.I.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of Christian Life*, (Pri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4,) p.235.

40. 그의 논문은 「안식일의 참된 교리」(*True Doctrine of the Sabbath*)이다.

41. D.William Twiss는 앞에서 소개한 안식일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이 계명을 단순히 도덕법으로 보지 않고 실정적 도덕법으로 보는데 이는 이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거나 인간이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이며 기록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어 그것을 부정할수 없는 그러한 법으로 말하고 있다. (97년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김영규의 강의안 중에서 발췌)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꺾박의 대상이 되었는데 꺾박자들은 제임스 1세의 왕명으로 만들어진 퍼스 5개 조항⁴²⁾이 목회자들을 강요하는 사건으로 되었다.⁴³⁾ 두번째로 개혁주의 퓨리탄들의 변성을 막기 위하여 소위 「오락의 책(A Declaration to encourage Recreations and Sports on Lord's Day)」⁴⁴⁾ 을 출판하여 목회자들로 하여금 읽도록 강요한 사건들이 제

42. 이 조항들은 성례를 무릎을 꿇고 받도록 할것,사적으로 병자에게 성례를 집행할 의무, 필요에 따라서 사적으로 세례집례의 허용, 이미 세례받은 어린이들은 주교에게 데리고 가서 전신례(Confirmation)와 주교의 축복을 받을 것,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강림절, 승천절,을 지킬 것 등이다.

43. 김영규의 "17세기 개혁 신학", p. 14.

44. 오락에 관한 포고문서(1633년 10월 18일)의 내용에 대해서

1) 명목상 주일날 오락을 허락한 것은 민생복지에 목적을 두었다.

신민(臣民)들은 주일 내내 씬하게 일하는 천한자들이다. 그들을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기 위하여 오락을 허용해야하고 그것을 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찰스1세의 포고는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 1세의 포고를 기억하는 것이므로 오락을 법적인 오락(lawful refcreation, lawful sports)이라 칭였다. 그 찰스 1세의 포고는 제임스 1세의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후자의 포고문에 그 선민에게 일요일이나 다른 성일에 그 법적인 오락과 정숙한 운동(honest exercises)을 금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포고문을 낸 것은 어떤 관구(Lancashire)에서 시발되었던 것이고 왕국 전체로부터 백성의 일반적인 불평에 근거하였다. 그 오락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남여 모두에게 허용되는 춤, 뛰고 넘는 남자의 경마 스포츠, 메이게임, 시골축제, 모리스 춤등 다른 해없는 오락들이었다.

2) 실제로 그 포고문서의 동기는 퓨리탈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었다. 동시에 퓨리탄 운동의 확산(... is much infected)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고 다른 종교 세력인 교황주의 (로마 카톨릭 국교기피자들: popish Recuants)를 견제한 것이었다.

3) 그 당시 오락과 스포츠의 금지는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른 성일에도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왕명포고문서는 주일성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일요일 저녁 기도후 (after evening prayer), 일요일 오후(upon the Sunday,s afternoon), 혹은 신적인 예배의 종결후(after the ending of all divine service) 그런 오락이나 스포츠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어떤 정숙한 오락이나 건전한 놀이 (honest mirth or recreation) 까지도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퓨리탄 정신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배모범에 정확히 반영 되었다.

4) 주일날 오락을 허용하는 법은 최고 재판권을 가진자들인 왕과 주교가 일체하여 이러한 꺾박 형태이었다. 그러한 퓨리탄 정신은 종교의 오용이었고 그 포고문에 의해

임스1세 때(1618)와 찰스1세 때(1633)에 있었다. 특별히 퍼스 5개 조항은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속 스코틀랜드 교회의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가 1638년 총회개혁에서 처음 그 총회의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퓨리탄들의 순수성(non-conformity)이란 이런 주일 성수와 예배 의식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개혁주의 전통을 지키는데 있었다.⁴⁵⁾

웨스트민스터 총회 성직자 중 William Gouge는 사도행전20장 7,11절의 주석에 근거하여 24시간 주일성수를 강조하였다.⁴⁶⁾

청교도들의 주님의 날을 지키에 대한 실제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주님의 날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날의 중

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종교의 오도임을 설득 시키고 개혁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경우 법정에 넘겨졌다. 그 법적인 제재효과는 그 법에 순응하거나 그 나라를 떠나야하는 택이었다.

5) 따라서 이러한 법들 때문에 퓨리탄 신자들과 성직자들 사이에 이런 법에 순응하는 자들(conformist)과 순응하지 아니한 자(non-conformist)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김영규, "17세기 강요안", pp. 5-6.)

45. *ibid.*, 오락의 책에 대한 저항 정신과 퍼스 5개 조항에 대한 거절은 모든 퓨리탄들(장로교회적인 퓨리탄들과 독립교회적인 퓨리탄)에게 공통적인 정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미국 프린스턴 신학의 확고한 정신이 되었다. 유럽 대륙에서도 이러한 퓨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들(G.Udemannus, W.Teellinck, J.Spiljardus)이 1612년에 강하게 주일성수를 강조함으로써 논쟁이 되기 시작하여 도르트회의에서도 논쟁이 되었고, 1620년 이후 G.Udemannus, W.Teellinck와 Burs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꼬리를 이어 1621-1627년 사이에 남홀란드(Zuid-Holland)의 특별대회에서 논쟁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A.Thysius, A.Walaeus, F.Gomarus, A.Rivetius, G.Amesius 등으로 이어지는 Hoornbeek, Heidaus, Coccejus 사이의 논쟁, Utrecht대학, Groningen대학 내의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퓨리탄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카톨릭주의와 영국 국교회자들의 주일의 세속화와 재세례파, 퀘커교도, 또한 다른 이들이 주님의 날을 버리는 운동을, 또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관용함으로 상업도시들이 세속화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날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반대하여 강한 주일성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김영규 교수는 그의 강의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46. William Gouge, *The Sabbaths Sanctification.*(London 1641,) 24ff.

요성을 실감하고 그 가치 평가를 바르게 터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주일이 '영혼을 위한 장날' 이므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성으로 맞을 것을 강조한다. 두번째는 공적 예배는 주일의 중심이 되어야하며 개인 기도는 공적 예배에 대해 두번째가 되어야 한다.⁴⁷⁾

세번째는 주일날 가족은 하나의 신앙 구성 단위로 역할을 해야한다.⁴⁸⁾ 가장은 가족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양도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가 이 책임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다. 네번째는 주일에 대한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는 피해야 한다. 모든 목적의 추구에는 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이 있으므로 교사들 중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바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타인의 실수나 또는 상상의 실수를 비평하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주의는 모두가 복음의 정신에 위반 된다고 경고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경주했다.⁴⁹⁾ 이와 같이 이 땅의 소명은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가르친 청교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부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즐거운 특권으로 여겼고 그래서 금식일이 아니라 축제일로 간주하였다.⁵⁰⁾

47. J.I.Packer, op. cit., pp. 240-241.

48.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Westerminster Larger Catechism)의118번의 문답은 이에 대하여 강조한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책임은 가족의 지도자들과 그 밖의 윗사람들에게 보다 더 특별하게 지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살필 의무가 있는 것이다."

49. *ibid.*, p. 241-242

50. 서창원,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성수 개념", (眞理의 깃발:The Banner of truth, 1996), p.61.

2. 칼빈과 淸教徒의 主日觀 비교

우리는 앞서 청교도들의 주일성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들은 누구 보다는 주일성수의 정신에 투철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제 4계명의 이해에 있어서 칼빈의 이해와 많은 유사점들이 있다. 청교도들은 율법의 실제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즉 죄를 견제하고, 인간을 그리스도에 게로 인도하며, 신자들의 행위를 이끌어 주는 것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⁵¹⁾ 그러나 그들은 칼빈이 그의 시대적 상황에서 않았던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개혁주의 자들은 어거스틴과 중세의 가르침 대로 4계명의 규정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안식'을 예시한 유대의 상징적 의식이라고 주장했다.⁵²⁾

칼빈의 제 4계명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고 그러나 도덕적인 부분은 영원한 법으로서 중생된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청교도들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한걸음 나아가 철저한 주일 성수의 정신을 드러내었는데 그들은 안식일과 제 칠일을 구별해서 안식일은 경건과 종교의 의무⁵³⁾ 라고 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일성수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청교도의 정신은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에 잘 표현되고 있다.

칼빈은 주일 성수의 주요한 요점들을 그의 기독교 강요⁵⁴⁾ 에서 살펴보면

51. 에드워드 힌슨, 『淸教徒 神學』, 박영호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p. 20.

52. J.I. Packer, op. cit., p. 236.

53.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안식일의 준수의 목적이 경건과 예배임을 말하였다.

54. 칼빈은 강요 최종판에서 이 계명을 준수하는 세가지 조건을 말하고있다.

그는 안식일은 하늘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휴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였다 즉,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는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였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이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도록 결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제임스 패거는 그의 책 *A Quest for Godliness*에서 칼빈은 제 4계명이 규정하는 바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적인 의미에 있어 주일날 교회 시간 외에 일이나 놀이를 금지하는 의미를 4계명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거의 이해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의 많은 글들에서 이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일에서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주일날에 세상적인 일들과 모든 오락을 금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날의 문제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체계적으로 예배를 다루는 율법의 첫째 목록에 있어 제 4계명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죠나단 에드워드는 “제 1계명은 대상을 확정하고, 2계명은 방법을, 3계명은 태도를 그리고 제 4계명은 시기를 확정한다.”⁵⁵⁾고 했다. 윌리엄 트위스는 주일의 날과 시간에 대해 그의 *"The Christian Sabbath Vindicated in a treatie"* 논문에서 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는 경건을 의한 시간의 결정과 방법은 율법, 자연법, 그리고 성경의 일반적인 규범 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였다. 그는 온종일 중일을 성수 해야 할 것을 말했다. 그는 이러한 증명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Calvin: Insi., 2. 8.28).

55. J.I.Packer, op. cit., p.237.

게서도 십계명을 영원한 법으로 인정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청교도들의 주일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칼빈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칼빈이 주일날이 7일중 하루라고 했을 때 그는 7일 중 어느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칠일중 하루를 강조 하는 것은 제 칠일과 주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효력이 주일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살려주는 방식으로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⁷⁾ 그럼에도 칼빈은 그의 많은 부분들에서 날을 지키는 미신에 대해 경고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V. 칼빈의 主日觀

1. 기독교 강요 초판 (1536)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십계명의 해설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서술을 맨 먼저 다루고 있다. 그의 십계명중 제4계명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칼빈은 안식일의 준수가 경건과 하나님 예배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것은 첫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심”(출 31: 13)이라 불리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더 강조하였다고 본다. (겔20:12-13; 22:8; 23:38; 렘17:21, 22, 27; 사56:2 민 15:32-35).⁵⁸⁾

56. 김영규, “ 윌리엄 트위스의 주일 성수에 대하여”, 97 불학기 강의 내용 중에서.

57. *ibid.*, 이러한 사상은 특히 칼빈의 창세기 주석과 그의 제 4계명에 대한 것들을 깊게 살펴해 보면 알 수 있다.

58. 존.칼빈,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양낙홍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p. 82.

이 계명은 그림자였으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증거 한대로 칼빈 역시 이 계명은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폐지되고 그림자 형상 혹은 모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 의식 기간을 위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갈 4:8-11; 골 2:16-17).⁵⁹⁾

즉 유대인들의 신앙이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표현되었던 그 의식들과 외적 제사는 폐기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공히 영원토록 가지기를 원하셨던 제 4계명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⁰⁾

칼빈에 의하면 이에 따른 진정한 안식일이란 마치 노예의 일과 같은 양심을 혼란시키고 괴롭히는 사악한 욕망들과 육신의 깨닫지 못한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양심에 평안과 평정을 부여해 주는 성령에 의해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다. ⁶¹⁾

그는 안식일은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일곱째 날에 할당되었는데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안식에는 아무런 한계가 정해져 있지않다고 말하고 있다.⁶²⁾ 칼빈은 안식일이 완전하고도 적절하게 기록해지는 일은 일곱째날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히 4:1-11) 그 일곱째 날이 사실상 최종적이며 영원하다고 본다.

신자인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것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

59. *ibid.*,

60. *ibid.*, p. 82-83.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고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사악한 욕망들을 깨닫기 청산하고 육신의 모든 깨닫지 못한 일들을 버릴 때 즉 하나님의 영으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일들을 버린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히 3:7-19; 사 35:5-8; 58:13-14).

61. *ibid.*, p. 83.

62. *ibid.*,

식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또한 매일 진보를 이루어 마침내 이사야의 말이 실현될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인데 그 말속에는 안식 위에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 66:23).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고전 15:28).⁶³⁾ 칼빈의 이러한 안식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에 완성하신 천지 창조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칠일에 모든 일을 쉬심으로(창 2:1-3) 하나님의 모범에 의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을 쉬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실 그 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으며 우리 모두는 제 칠일의 약속이 보장된 이 안식을 열렬히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⁶⁴⁾

칼빈은 이러한 내용들이 주일에 적용되는데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날에 앞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즉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주일은 첫째는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의 시행을 위해 모이도록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갈4:8-11; 골 3:16) 두번째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러한 일들에 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기계적이며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해야 하며 이생의 행위와 관계 있는 모든 추구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엄숙한 날들도 같은 종류의 것이다. 그때 우리 구원의 신비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⁶⁵⁾

칼빈은 우리가 한 날과 다른 날을 구별하는 것은 종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공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우리가 어떤 규정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을 그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나 하는 것인 양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날과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63. *ibid.*,

64. *ibid.*,

65. *ibid.*, p. 84.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모든 일들이 결서를 따라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정된 날을 두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다(고전 14:40). 칼빈은 한 주 가운데 어느 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유대주의 적인 발상인데 이같은 형태는 여전히 날을 지키는 것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 날을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이같은 제도에 집착하는 자들은 무식하고 육적인 안식일의 미신에 있어 유대인들을 세배 이상 능가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사 1:13-15; 58:13).⁶⁶⁾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1537년, 특히 1539년판의 강요에서는 많이 변경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그는 안식일의 준수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부분은 사라졌지만 안식일 준수에 도덕적인 부분은 고대의 그림자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똑 같이 적용될 것을 말해 주고 있다.⁶⁷⁾ 안식일의 준수가 종교적인 의무를 떠나 인간들 사이에서 공평을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66. *ibid.*, pp. 113-115. 이러한 내용들은 Richard B. Gaffin이 기독교 강요 1536판의 제4계명의 설명들을 요약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다. Gaffin은 그의 논문 “*Calvin and The Sabbath*”에서 초판을 다음의 명제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매주의 안식일은 은제로부터의 영적 안식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것이다. 이 안식이 실체가 된 때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은 모형적인 중요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의 제 4계명의 의무는 신자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인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 매주의 안식일은 공적인 집회와 예배의 날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일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 세번째, 매주의 안식일은 종들과 노예들이 노동으로부터 정기적인 휴식을 갖도록 하고 부당하게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pp. 38-39).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입장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도 변형도지 않고 내용은 짧지만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7.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JohnT. McNeill, (New York), pp. 397-398.

이는 비인간적인 주인들이 계속적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부려먹음으로써 적절
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들과 짐승들의 노동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칼빈은 오늘날 우리도 어떤 노예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명령에 따라 공평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
였다.⁶⁸⁾ 칼빈은 주인이나 종을 무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으
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하인이나 상전 모두가 같은 조
상 아담의 후손의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골육지친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칼빈
이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종인가 주인인가 하는 신분을 구
별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의 일부로 생각하신다는 사실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과 마찬
가지로 종들도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2. 제네바 지침과 신앙고백(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1537)

이 문답서에서는 주님의 법에는 모든 의의 완전한 기준(規準)이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고
도 분명하게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범에서 주님의 영원한 의지를 알
수 있다고 피력한다.⁶⁹⁾

출애굽기 20장의 해석중 4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안식의 의미를 예표하기를 원

68. *ibid.*, pp. 84-85.

69. 최병석역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16. 17세기를 중심으로).(도서출판 신성:
광주,1997), p.109.

하셨기 때문에 , 즉 그날 신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떤 특정한 날이 있어서 신자들이 그의 율법을 듣고 그를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 셋째로, 남의 권세 밑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이 주어져서 그들도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취할 수 있기를 그는 바라셨다.⁷⁰⁾

이러한 제네바 요리문답의 입장은 기독교 강요 1536년(초판)의 입장과 같으나 요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뒤이어 이 세 가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첫번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쳤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에 의하여 모든 표상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실제이신 분으로서 그가 강림하시자 모든 그림자는 사라졌던 것이다.⁷¹⁾

그러나 나머지 두개의 이유들은 옛것의 그림자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들은 모든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다. 따라서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찬의 떡을 떼며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⁷²⁾ 그리고 더 나아가 종들과 노동자들에게 노동으로부터 휴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그와 같은 모임을 매일 가질 수 없으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

70. *ibid.*, p. 113.

71.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확인하기를(골2:17) 안식일은 앞으로 다가올 실제의 그림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다른곳, 즉 로마서 6장(8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외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우리 육신의 부패에 대하여 죽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이 요리문답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단 하루 동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되는 것으로 마침내 우리의 자아가 죽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꼭 들어찰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적으로 날들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금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p. 113)

72. *ibid.*,

을 폐지하고(이것은 미신적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른 날을 정하여 이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문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리가 그림자 없이 나타나 보여졌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일로부터 쉬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합당한 규례를 시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행하며 공기도를 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에게 종속된 사람들을 일로써 비인간적이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다.⁷³⁾

3. 기독교 강요(1539)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제 4계명의 해석은 1539년 판에서 거의 종료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초판에 나타난 그의 입장에서 조금 확대되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이 계명의 목적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명상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⁷⁴⁾ 그는 이 안식일, 즉 어느 하루를 외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초대 교부들이 상징과 예표로 보는 것은 옳으나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문제의 절반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우리는 더 깊이 해석하며 이 계명을 준수하는 세가지의 조건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⁵⁾ 즉, 첫째 제 칠일의 안식일

73. *ibid.*, pp. 113-115. 이러한 내용들은 Richrd B. Gaffin이 기독교 강요 1536판의 제 4계명의 설명들을 요약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초판의 입장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내용은 짧지만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4. 이는 넷째 계명의 첫 부분으로 기독교 강요 1539년판에 삽입한 것이다.

7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JohnT. McNeill,(New York), pp.

은 하늘의 입법자께서 영적 휴식을 알리시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셋째는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중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안식일의 준수에서 영적인 안식의 예시(豫示)가 가장 중요하다고 칼빈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최고의 찬사를 주셨으며 이 계명에서와 같이 엄격한 복종을 내리신 다른 계명이 거의 없다.(민15:32-36; 참조, 출31:13이하; 35:2).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⁷⁶⁾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칠일 중 하루를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예컨대 주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의 지도하에서 영적인 안식을 끊임없이 명상하게 하셨다고 해석한다. 또 일곱째 날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 날로서 충분하리라고 보셨다고 하며, 혹은 지기가 하신 예를 들어 백성을 더욱 잘 분발시키려 하셨다고 하며, 혹은 적어도 그들이 조물주를 본받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안식일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셨다고 해석하고 있다.⁷⁷⁾

이제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둘째와 셋째 이유들은 고대의 그림자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똑 같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집회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는 일상 경험으로 모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의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394-395.

76. Calvin, Inst. II.8.30.

77. 이러한 칼빈의 정신은 그의 예레미야 주석(17:21-27)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아진다.

제정하셨고 우리도 같은 곤란을 느낀다면 또한 우리의 필요에도 유의하셨다. 우리가 날들의 구별을 일체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칼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 주신 질서⁷⁸⁾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⁷⁹⁾

칼빈은 바울이 날에 대한 구별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고 그는 일곱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거기 예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으로 전달된 것같이 우리에게서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만이(소위 제칠일의 “지정”(指定)만이) 폐지된 것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 즉, 이레중에 하루를 정하는 것은-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날을 비난하는 의미로 날을 변경했을 뿐이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⁸⁰⁾고 비난하고 있다.

4. 제네바교회의 교리문답(1545)⁸¹⁾

이 교리문답서는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부분은 믿음에 관하여 이며 둘째부분은 율법에 관하여, 셋째부분은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넷째

78. 칼빈은 여기서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Zacharias Ursinus(1534-1583)는 주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보면서 그렇지만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상에서 준수 되어서는 안되며 그는 교회의 일들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와 통치하에 있다는 의미에서만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케핀은 그의 논문에서 말하고있다.

79. *ibid.*, 2.8.32.

80. *Inst.*, 2.8.32-34.

81. *Der Genfer Katechismus von 1545.- Catechismus ecclesiae Genevensis, hoc est, formula erudiendi pueros in doctrina Christi. (Authore Joan. Calvino.)*

부분은 성례에 관한 순서로 되어있다.⁸²⁾

율법(십계명)의 제 4계명의 질의 응답을 보면, 안식일의 보존이 소위 옛법의 의식의 한 부분이며,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이며 이러한 의식의 테두리 내에서는 이 계명이 실제로는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며 다만 구약 시대에 주어졌다.⁸³⁾ 그러나 의식외에 즉, 영적 안식을 명시하며,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종들에게 쉼을 주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

영적 안식의 뜻은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욕을 죽이고 우리가 우리의 소욕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 전진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⁸⁴⁾ 즉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들을 비워야만 한다. 그는 그의 십계명 설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유혹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이 홀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그분 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⁸⁵⁾ 칼빈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육적 욕망과 세상의 부패한 것들로 부터 우리 자신이 분리(separate)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 7일의 선택에 관하여는 성경에 7이란 숫자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그

82. 이러한 구조는 1536년판의 기독교 강요와는 첫부분과 둘째부분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답서의 내용도 강요의 초판과 1537년의 제네바 요리문답과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83. *ibid.*, p. 209.

84. *ibid.*,

85. 벤자민 팔리, *op.*, cit, pp. 176-177.

것은 계속을 표시하는데 적용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안식이 이러한 생활에서 다만 시작이라는 것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하면, 비로소 완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여기서 제시한 이유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하는가?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사역을 엿새 동안에 이루신 후에 제 7일을 자신의 날로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닦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 하지만 그것은 한 주간의 하루가 아니라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한날이 특별히 결정된 것이다.⁸⁶⁾

그러면 이러한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그의 신앙과 경건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여야 한다. 또한 이 계명은 종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즉, 다른 이들의 주관 하에 있는 자들에게 휴식이 보증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은 공적인 규율에도 도움을 준다. 만일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면 다른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은 의식적인 면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 설정된 법을 엄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중의 기도와 성례에 참여하며 믿는 자들 중에 있는 영적 질서에 거역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⁸⁷⁾고 했다.

5. 칼빈의 주석들

1) 舊約

가. 창세기에서(2:3)

칼빈은 그의 창세기 2:3절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의 주석에서

86. *ibid.*,

87. *ibid.*,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히 제정하셔서 특별한 법으로 그 날을 다른 날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안식'을 정하신 데에도 사실은 그분이 똑같은 목적을 품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머지 날들 가운데서 한 날을 선택하셔서 이러한 특별한 용도로 쓰게 하셨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엄숙한 헌신 외에 전혀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인간들이 묵상하고 이 날에 그들의 정성을 쏟기를 요구하고 계신다.⁸⁸⁾

하나님은 인간들이 마땅히 주의깊게 그것을 관찰해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려고 매 칠일째 되는 날을 일상 생활에서 결여했던 생각을 이 날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날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을 복 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날이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며 매 칠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분의 본보기가 항구적인 규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⁸⁹⁾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한 시대에나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후에 율법으로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교훈이 제공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생소한 것은 한동안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안식을 묘사해 주는 합법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안식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현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더욱 빈번하게 안식일에 그분의 고대 백성들에게 성화(聖化)의 상

88. 존. 칼빈, 「舊約聖經註釋」,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p. 84. 이것은 사실상 전 생애의 고유의 업무이다. 이러한 고유의 업무 가운데서 인간들은 날마다 그들 자신들을 단련하여 처지의 경탄에 찬 웅대한 극장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89. 여기서 칼빈은 우리가 그러한 제도의 의도를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다른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많이 그리고 쉽게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창조주에게로 집중 시키려는 것이라라고 했다.

정⁹⁰⁾을 부여해 주셨다고 증명해 주고 계신다.

칼빈은 그러므로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기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인간 생활의 항구적인 통치에 속한 것과 고대 비유들에 속한 것을 구별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⁹¹⁾ 이러한 그의 입장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보다는 제 2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또한 칼빈은 안식일이 안식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에게 태초부터 자신들을 모두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전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이 세상 끝날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의 준수가 예배와 또한 경건과 연관 되어진다는 사상은 그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창세기 주해의 입장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주일의 당위성에 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주석으로 보여진다. 즉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안식일은 태초에(from the beginning)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신 명령으로 이 규례는 세상 끝날까지(to the end of the world)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말은 제 4계명이 창조의 규범에 속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 시작은 태초가 되겠고 그 끝은 세상 끝날 즉 영원하다는 말이 된다.⁹²⁾ 우리는

90. *ibid.*, p. 85. 'Sanctificationis symbolum,'- 즉 '성화의 상징이나 표'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그분 자신에게 속하게 따로 세우셨다는 표이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겔20:12)

91. 이러한 칼빈의 이해는 그의 율법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는 율법의 의식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지만 도덕법(주로 십계명)은 항구적으로 준수 되어야 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92. 박희석, *op.*, *cit.*, p. 114.

이러한 칼빈의 주해를 통하여 이 주일성수의 정신이 인간의 제도나 생각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 명령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나. 출애굽기에서(31:13, 23:10)

칼빈은 출애굽기 31장 13절의 “이는 그 날이 너희에게 기록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의식을 가장 기록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준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소홀이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⁹³⁾ 그러므로 그날에 일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저주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에 대한 가벼운 위반일망정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여시는 것을 보아서 이 신비가 얼마나 귀엄스럽고 탁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구별의 표로 삼고자 하셨던 것을 제 멋대로 뒤엎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 행위였다. 하지만 칼빈은 여기에서 율법 시대에 영원한 것으로 애기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성취된 사건들의 새로운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율법의 영원성이라는 것 역시 그 립자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 충만한 시기(fulness of time) 이후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안식일의 외형적 준수는 오늘날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남아 있다.⁹⁴⁾

다. 레위기에서(19:30, 26:2)

93. *ibid.*, p.419. “ils mettoient bas la religion comme pour la fouler au pied; ” 그들이 신앙을, 마치 짓밟는 듯이 내팽개쳤을 것이기 때문이다.-프랑스어 역본.

94. *ibid.*, pp. 419- 420. 이와같은 칼빈의 안식일의 이해는 그의 율법의 이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제 7일엄수주의자나 아니면 율법폐기론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낳게된다.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성전 예배가 안식일과 연관되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관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으로부터의 쉼은 제사와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면적인 목적이 없이 쉬기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롱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소를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그들의 성전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계셔 주시 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명백히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주해하고 있다.⁹⁵⁾

라. 이사야에서(56:2, 58:13-14)

칼빈은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의 주석에서는 먼저 율법의 준수를 언급하는데, 즉 인간들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율법(the Law)을 지키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귀절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안식일은 모세가 언명하고(출 31:13, 17), 에스겔(20:12)이 되풀이 하듯이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일부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의 원리를 따라서 종교의 모든 실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의식으로 만족하거나 우리의 나태함을 기뻐하시지 않고 진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일에 몰두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이사야 58장 13-14절의 주석에서는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즉 겉으로 보기에 태만한 것이

95. *ibid.*, p. 418.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 , 그리고 정욕과 악한 생각을 삼가하는 참된 자기 부정에 성수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다.

칼빈은 이사야가 의지와 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순종의 모든 면을 포함시킨다고 서술한다. 이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를 주석 하면서 이 즐거운 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까닭은 안식일 준수와 진지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혹은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은 이사야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제쳐놓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치켜세운다면 잘못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⁹⁶⁾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것처럼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외적 의식, 곧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던 나태함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상의 것을 심중에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저버리고 죄악스런 성향을 포기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순종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오늘날 그 의식은 폐지되었으나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까닭은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⁹⁷⁾ 바로 이와 같은 칼빈의 견해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 적용되어지고 지켜져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 예레미야에서(17:21-27)

칼빈은 여기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율법 자체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준수하는 행위 자체는 쉬운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 백성

96. 존.칼빈, *ibid.*, pp.244-245.

97.*ibid.*,

의 불신앙은 이중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증명하는 안식일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자체를 멸시했고, 또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는 그토록 쉬운 일에서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슴없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되었다고 진술한다. 우리는 이사야에서 안식일이 어떠한 목적을 지녔는지를 상고했다. 곧 안식일에 그들은 육체의 모든 일에서 떠나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이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쉽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치되는 일이 있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철일을 선택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의 일을 생각하는 데에 온 몸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이해한다.⁹⁸⁾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날과 다른 날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율법을 선포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으신 때로부터 안식일을 엄수하라는 교훈을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라(출20:8)’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었다.⁹⁹⁾ 특별히 이 예레미야 주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함에 대한 책망과 아울러 안식일의 준수시에 받을 축복도 함께 묘사되고 있다. 이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복으로는 다윗 왕국이 그들에게 계속될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은총이다. 이러한 축복은 유다 백성 전체에게 확대되는데, 왜냐하면 본래 그 왕국이 그러한 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 백성이 은총을 다같이 누리는 것이다.¹⁰⁰⁾

98. 존. 칼빈, 예레미야 주석, PP. 445-446.

99. *ibid.*,

100. *ibid.*, p. 452.

선지자는 번제와 희생과 소제를 언급하는데, 이러한 모든 제사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들의 생명과 안전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는 데에 예배의 본원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7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을 위협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청치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읍과 성문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선지자는 유대인이 회개한다면, 그리고 순수하고 타락되지 않은 예배가 유대인 중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확실한 희망을 품고자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을 내세울 때에,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공포에 휩싸이도록 했다.¹⁰¹⁾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에서도 그는 이 안식일의 준수와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안식일의 준수가 그 바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예배는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경외에서 떠나 인간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바. 에스겔에서(20:12-20)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칼빈의 에스겔서에 나타난 안식일의 개념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먼저 율법에 대해 언급한 후, 안식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성별 되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율법의 조항이 불쾌한 점도 있지만, 넷째 계명은 은혜로운 약속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을 자신하므로 거기에는 특별한 향기

101. *ibid.*, pp.454-455.

가 들어 있다.

선지자는 '거룩하게 하는'이라는 귀절을 통해 충분히 제시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창22:17)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은혜로써 사랑하시는 것과 성령으로써 중생 시켜 주시는 것과 화해하여 호소를 쉽게 들어주시는 것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⁰²⁾ 칼빈은 안식일의 준수를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 짓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입증해 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연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써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며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기 위하여 찾으신 것이다. 안식일은 단순히 안식일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다른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는 것의 그림자라고 했다. 즉 이 계명의 진리와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되었고, 바울은 이 계명을 통해 구별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시키는 목적이 교회를 자신의 영으로써 중생 시키시는 것임을 칼빈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곧 불가시적인 은총의 가시적형식 이었고 표징임을 말해 주고 있다.¹⁰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들은 안식일의 구별도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들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고 또한 안식일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102. 존.칼빈, 에스겔주석, pp. 341-342.

103. *ibid.*, pp. 343-344.

2) 新 約

가. 마태복음에서 (12:1-8)

칼빈은 본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악의에 차 있는 정신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이고 사소한 일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미신을 폭로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거룩한 일이었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범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관념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 칼빈은 그러한 자들이 자기들은 엄청난 미신을 용인하고 있는 반면에 사소한 일에 그토록 꼼꼼한 것은 위선이라고 보았다.¹⁰⁴⁾

칼빈은 마태복음 12:3-7과 마가복음 2:27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릇된 비난을 다섯 가지로 논박하고 계신다고 했다. 첫째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다윗이 받을 책망을 면제해 주었다면 동일한 조건 밑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가 받을 책망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식들은 경건이 손상되지 않는 한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두번째로는 안식일에는 제사와 어린이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속한 일은 무엇이나 허용이 된다. 신앙적 의무는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율법이 사람들을 향하여 쉬라고 명할 때 거룩한 일까지 쉴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¹⁰⁵⁾ 세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의식들을 행하라고 명하셨는지를 깊이 생각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은 거의 모든 세대

104. 존. 칼빈, 마태복음 주석, p.459.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은 박하와 회양의 십일조를 내고 있으면서 율법의 계명들은 버리고 있다고 책망 하셨다(마23:23).

105. *ibid.*, p. 461.

사람들의 공통된 과오라고 보았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의식에만 집착하고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호6:6) 그들을 책망했다.¹⁰⁶⁾ 이 왜곡된 의미 안에서 그들은 인간의 사랑에는 등한하고 의식에만 전념했다고 했다. 이어 칼빈은 하나님은 외적 의식들은 그 정당한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한 그 중요성을 갖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바라 시지도 않는다고 했다.¹⁰⁷⁾ 네번째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과 다른 율법적 의식들까지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율법이 참혹한 노역(奴役)이며, 주님만이 이 노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자(養子)의 영을 주시는 분에게로 우리를 해방시킨다. 다섯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므로 안식일이 사람의 멸망을 초래하게 한다면 잘못이라고 칼빈은 말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영원히 철폐하신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했다. 즉 주님은 안식일을 정당하게 가르치고 계실 뿐이다.¹⁰⁸⁾

나. 마가복음에서 (2:24)

칼빈은 이 말씀의 주석을 통하여 안식일의 목적을 말해 주고 있다.¹⁰⁹⁾ 그는 안식의 목적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며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땅의 모든 산업을 쉬게 하며 성회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다. 이 법적 관찰이 그 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해석은 율법을 세우신 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미신이란 참으

106. 그리스도는 이 성구를 당시의 상황에다 적용 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탄판의 의미로 외곡시킨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107. *ibid.*, p. 462.

108. *ibid.*, p. 463.

109. 이 성경의 주석은 칼빈이 제 4계명에 대한 그의 다른 여러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안식일에 대한 그의 사상들과 동일하다.

로 악의가 있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야망과 개인적인 증오가 마음속에 뭉쳐 있을 때 위선자들은 실로 오만하고 잔혹하게 행동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¹¹⁰⁾

다. 누가복음에서(눅 5:5-16)

38년된 앓은뱅이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표적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곧 이어 행하신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상 모략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고 또한 전 세계가 분노로 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은 정당하게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깨에 짐을 지워 주셨고 그의 권위로 그들 밀어 주셨다. 그 병자의 변명은 곧, 고침을 받은 자의 자의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명령할 권세를 가진 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라는 대답이었다고 칼빈은 보고 있다. 그 병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로 확신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까지 그들의 판단을 미루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¹¹⁾

칼빈은 7장 21-22절에서 할례의 예를 들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안식일의 예배가 범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제 칼빈은 9장 15절의 주해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책잡는 것은 그들이 타락한 태도와 악의에 의해서 혼미케 되어 아무 것도 보지 못

110. *ibid.*, p. 460.

111. 존 칼빈, *누가복음 주석*, pp. 170-172.

한 것이 아니면 이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런 다음 칼빈은 율법의 말씀이 인간의 일에서 쉬라고 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서 쉬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¹¹²⁾

라. 사도행전에서(20:7)

사도행전에서는 13:14,27,44; 15:21; 16:13; 17:2; 18:4등의 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들이 있으나 이 글의 주장과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3:14절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에서 칼빈은 안식일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들은 함께 모임으로써 나태한 안식이 되지 않게 했고 또한 유대인들이 세상적인 업무를 버리고 거룩한 집회를 가짐으로써 지상적인 수고의 중지가 천상적인 단련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¹¹³⁾ 그리고 칼빈은 20장:7절에서 “안식후 첫날”을 그 주간의 첫째날 혹은 안식일 다음날, 또는 특정한 안식일을 보고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출발하기 전날 한 장소에 모든 제자들을 쉽게 모으기 위해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대단히 그럴듯하다. 그들은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칼빈은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거룩한 만찬으로 본다. 그 이유는 한 큰 무리가 그 장소에 함께 모이게 된 다음에 잇달아 생기게 되는 문제는 쉽게 예측되므로, 만찬이 개인의 집에서 준비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은 그 사실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것은 실제로 한 밤중이었고 바울이 떡을 떼는 자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맛보기¹¹⁴⁾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따라서 칼빈은 모두에게 보다 적절한 날이 주의 성찬을 축하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지정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

112. *ibid.*, p. 340.

113. 존. 칼빈, 사도행전 주석, p. 473.

114. 11절의 헬라어는 *γευσόμενος*(큐사메노스), 칼빈은 *degustasset*(테구스타셀)라 해 놓았다. 둘의 의미는 모두 '맛보다'는 뜻이다.

다.

마. 로마서에서 (14:5-6)

칼빈은 로마서 14:5절의 주석에서 절기와 엄숙한 날들에 매여 있는 유대인의 연약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명백한 자유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양심에 위배되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뻔뻔스러움과 모독의 표시였듯이, 그들이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도 신앙의 표시였다. 칼빈은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문제는 아무 것도 행치 않을 정도로 주의 깊게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설명한다.¹¹⁵⁾

6절의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에서 칼빈은 바울이 이러한 것들이 미신적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것만을 받아들여시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이, 절기에 대한 미신적인 준수로부터 완전히 구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기다리며 자신을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국한시킬 도리밖에 없으며 자유(liberty)의 축복 역시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누릴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바. 고령도전서에서 (16:2)

“매주 이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의 주석을 통하여 칼빈은 이 주일날의 선택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율법의 그림자를 폐하였기 때문이며 그날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생각나게 하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⁶⁾ 이 귀절에서 우리는

115. 존.칼빈, 로마서 주석, pp. 419-420.

116. G, vos는 구약은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고 있음으로 노동의 날들이 먼저 오고, 안식의 날이 주간의 끝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신약에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돌아 보고 있음으로 비록 종말적인 안식을 바라 보는 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안식을 먼저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다: G. vos, *Biblical*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일을 멈추고 휴식하는 특별한 날을 항상 가졌었다는 것은 쉽게 추론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 특별한 날은 날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날로 지정된 것이다.¹¹⁷⁾ 칼빈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상징적인 안식일의 요소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질서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점을 그의 십계명의 설교에서 말한다.

제 4계명은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공공예배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물론 제 4계명 그 자체가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주장하기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공적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칼빈은 이에 대한 증거로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들이 공공예배를 위한 모임을 가졌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¹¹⁸⁾

사. 갈라디아서에서(4:10)

로마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울은 날들을 지키는 것이 초보적인 일이라고 예증한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통산적으로 지키고 있는 계절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자연의 질서는 고정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작

Theology, 이승구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p. 160.

Bavinck도 그의 책 *하나님의 큰일*에서 타락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 가서 그의 완전한 교통에 이르러야 했지만, 타락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내려 오셔서 그 거함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으셨다. 그전에는 노동의 날들이 안식일을 앞섰지만, 이제는 주일이 안식일로 시작되며 그 모든 날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다고 했다. (Herman. Bavinck, *Magnalia Dei*, 김영구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p.383.)

117. 존. 칼빈, *고린도전서 주석*, p. 474.

118. 박희석, "칼빈의 안식일의 신학", 『*神學指南*』 제5권 4집, 85년, 겨울호, p. 102.

정을 세상 끝날 까지 계속하리라고 말씀하셨다(창8:22). 이와 같이 관습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농경(農耕)에나 공적인 사무에만 유익할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스리는 데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5절에서 말한 대로 날들의 구별과 일정한 날들에 특별히 성성(聖性)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질서와 전체적인 조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할 행사는 자유임을 말하고 있다.¹¹⁹⁾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의 의도하는 바는 ‘칠’이라는 숫자 그 자체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 안식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항상 모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제정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또한 칼빈은 ‘칠’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한상 완전을 뜻한다고 보았다.¹²⁰⁾ 그는 제 칠일 즉, 안식일이 다른 6일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날로 간주한다.¹²¹⁾

아. 히브리서에서 (4:3-10)

칼빈은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의 본질을 저자가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씀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축복이므로, 그것은 역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안식은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것이다.¹²²⁾ 완전한 안식일은 두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죄악된 생활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기도

119. 존. 칼빈, 갈라디아서 주석, pp. 598-599.

120. Gaffin, op., cit, pp 34, 46.

121. 박희석, op., cit, p. 115.

122. 존. 칼빈, 히브리서 주석, p. 96.

하다. 안식의 기쁨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즐기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안식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여야만 한다.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계속 전진한다는 조건하에서 이 땅에서 안식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8절에서 저자가 다윗이 안식을 말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한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자들의 최종적인 안식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가나안 땅이 안식을 의미했지만 하나의 그림자 또는 표상에 지나지 않았다. 10절에서는 영원한 안식(sabbath)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이 안식 안에 있으며 거기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 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을 중지할 때 일어난다고 말해 주고 있다. 칼빈은 사도가 안식일에 대하여 특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외적 준수를 중지시키려 하였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칼빈은 저자가 이제 외부적인 안식(rest)에서 벗어나 안식일의 의식 준수를 다른 각도, 즉 율법의 완성 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다.¹²³⁾

123. *ibid.*, pp. 97-99.

VI. 結論

지금까지 칼빈의 율법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칼빈이 말하고 있는 주일관을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특히 제삼사용: *usus legis tertius*)은 중생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들의 삶이 근거할 하나의 영원 불변의 규칙이라고 했다¹²⁴⁾ 그리고 십계명중 제 4계명의 이해에서 그는 의식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기되었지만 도덕적인 법은 영구한 법으로 남아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 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된다.

칼빈의 작품들에 나타난 주일관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날은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을 명시하며 신자들은 자기의 일들을 중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다.

셋째,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의 전복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리시고자 하실 때 안식일에 대한 경의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하셨고¹²⁵⁾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주셨다고 했다.

특별히 우리는 “날”에 관심이 있는데 즉, 이것이 하나님으로 부터인가? 교

12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2.8.5

125. 칼빈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의 입증으로 겔20:12-13, 22:8, 23:38; 렘17:21,22,27; 사56:2의 말씀을 들고 있다.

회의 제도인가? 등의 문제는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으로 치달아 왔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칼빈에 머무르게 될 때에는 다양성으로 빠지게 된다. 칼빈은 그의 시대에 드러난 날을 숭배하는 무리들을 민감하게 인식했으며 또한 이날의 미신적 숭배에 대해 그의 작품에서 많은 비난을 가한다.

그러나 그의 창세기 주석 및 많은 부분의 글들에서 그는 주일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효력을 살려주는 방식으로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구약 주석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당위성은 물론이고 그 실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는 안식일의 소홀은 신앙의 타락을 가져옴을 경고한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는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칼빈은 에스겔의 주석을 통하여 이 4계명은 은혜로운 약속을 내포하며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는 불 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형태라고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의 내면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외식적인 주일 성수의 기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할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일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함에서 이루어진다. 주일성수의 정신은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칼빈에게서 보았듯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 예배의 직접적 본질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없을 때 세상의 문화나 제도에 우리의 기독교가 뿌리째 뽑힐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긴급 성과 긴장감을 가지고서 반응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원론들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 참고 도서 목록

* 1차 자료

이형기편저, 「세계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 장로회 출판사, 1994.

엘렌 G. 화이트, 「각 시대의 대 쟁투」. 김동기역, 서울: 시조사, 1974.

존.칼빈, 「기독교 강요」. 포드베틀즈 서론, 양낙홍역, 초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기독교 강요」. 김영규역, 미간. 1997.

- 「기독교 강요」. 김중흠. 이종성. 한철하공역, 上.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舊約 聖經 註釋」.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에스겔編,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 「新約 聖經 註釋」.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編,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79.

최병석역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광주: 도서출판 신성, 1997.

서창원, “칼빈과 청교도들의 주일성수 개념.” 「진리의 깃발」, no22 (1996. 12)

김영규, “17세기개혁신학.” 미간논문, 1997.

박희석, “칼빈의 안식일 신학.” 「神學指南」, 제5권 4집(통권207호), (겨울호 1985).

Calvin,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JohnT. Mcneill, New York.

Packer,J.,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of Christian Life,*
Pri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4.

Luter,M., WA,Series.

Gaffin,R., *Calvin and Sabbath.* Pensylvania:ChestnuHill,1962.

Twiss,W., *The Christian Sabbath Vivdicated.* London, 1641.

* 2차자료

마틴 로이드존스, 「칭교도 신앙」. 서문강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백워드. 스토트, 「기독교인과 주일」. 신헌재역, 서울: 할렐루야서원, 1990.

벤자민 팔리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사무엘레 바키오키, 「安息日の 歴史와 神學」. 오만규역, 서울: 시조
사, 1981.

제임스B. 헤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김남식역, 서울: 성광문
화사, 1997.

존머레이, 「조직신학 I」. 박문재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에드워드 힌슨, 「淸教徒 神學」. 박영호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회,
1992.

이은선, “칼빈의 神學的 政治 倫理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 請求論文. 충신
대학교 대학원, 1996.

강정우, “칼빈의 율법 제3용법 이해” 석사학위 논문. 고려신학대학원, 1996.

김달원, “主日聖守에 관한 神學的 考察.”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
대 학원, 1986.

정광석, “主日 聖守에 對한 聖經的 考察.” 석사학위 논문. 亞細亞 聯合神學
大學院, 1985.

나중구, “주일 성수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 대학원, 1986.

Fletcher, J.,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Gouge, W., *The Sabbths Sanctification*. London, 1641.